



**앵커멘트**

플라스틱과 화학약품 같은 산업폐기물은 그냥 두면 주변을 더럽히는 쓰레기일 뿐이지만, 재활용하면 훌륭한 신재생에너지로 쓸 수 있습니다.

이지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



**리포트**

각종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. 언뜻 봐서는 보통 소각업체처럼 보이지만, 사실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. 폐기물을 태울 때 나오는 열에너지로 물을 데우고 이 과정에서 고압의 증기 에너지를 얻습니다.



**인터뷰 : 왕성남, 에코서비스코리아 환경에너지팀장**

"폐열로 버려지는 것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그 점만 가지고도 저희는 큰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."



특히 산업폐기물은 열량이 높아 에너지를 얻기 위한 원료로 더욱 효과적입니다.

산업폐기물 1t을 태우면 5t의 스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석유 350ℓ 를 사용한 것과 같은 양입니다.



여기서 나온 에너지를 공급받는 이웃 공장을 찾아가봤습니다. 연결된 관을 따라 들어오는 증기로 물을 뜨겁게 데워 염색 작업을 진행합니다. 보일러를 사용할 때보다 비용이 40% 정도 절감되는 만큼, 공급받는 업체 입장에서도 반길 수밖에 없습니다.



국내 업체들이 지난해 폐기물을 태워 만들어낸 에너지는 202만 기가칼로리로 원유 1,400억 원 어치를 절약한 효과를 얻었습니다.